“재가불교 성공, 폭로보다 대안에 있다”

서재영 편집위원, 〈불교평론〉 권두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재가불교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와 모범적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사진>은 〈불교평론〉 여름호(78호) 권두언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가불교운동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권두언에서 재가불교가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6가지 성공 조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편집위원이 첫 번째로 꼽은 성공 조건은 ‘목표의식’이다. “출가든 재가든 종단중흥과 조직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서 편집위원은 “불교의 목표와 모든 활동은 불법을 널리 펴는 전법(傳法)으로 귀결돼야 한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가라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적 주체로의 전환’을 재가불교운동의 두 번째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재가운동이 승단 비위 폭로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지를 견지했다.

서 편집위원은 “승단의 비위를 바로잡고 교단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종단 정화라는 명분으로 치부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고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것이 대안적 실천일 수는 없다. 이런 인식과 활동은 여전히 출가중심의 전통에 목매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가운동 성공 조건 분석해
종단중흥 아닌 傳法 목표를
비위 폭로, 대안적 실천 아냐
대안 제시 · 실천적 모범 필요
‘재가불교운동’특집 맞춰 제언



이어 “스스로 독자적 모범을 구축하지 못해 승가 비판에 매몰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라며 “재가불교가 대안이 되려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 기반 확립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정신 확립 △종교적 권위 확립도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제시했다.

조직 기반에 대해서는 특정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닌 공동체와 대중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을 주문하며, 한국의 정토회와 일본의 SGI를 예로 들었다. 서 편집위원은 “재가자 이케다 다이사쿠가 이끄는 SGI의 성장 배경에는 조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적 권위 확립에 대해서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종교적 권위가 나온다. 욕됨을 참는 것에서 여래의 기품이 나오며, 존재의 공성을 보는 안목과 실천에서 여래의 덕성이 확립된다”며 “재가불교가 성공하려면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적 내용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종교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재가불교 스스로 실천적 모범이 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리가 있고 논리정연한 웅변만으로 종교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종교적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재가불교가 대안이 되려면 승가에 대한 비난자가 아니라, 삶과 종교적 실천에서 모범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재가불교운동을 주창하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것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깃발이다. 교단의 삿됨을 무너뜨려 정법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顯正)’이야말로 가장 근원적 파사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평론〉 여름호(78호)는 특집으로 ‘재가불교운동을 이끈 사람들’을 다뤘다. 특집에는 김기추 · 이종익 · 이한상 · 장상문 · 이기영 · 박완일 · 목정배 · 여익구 총 8명의 재가불교 선지식들에 대한 소(小)평전이 실렸다.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손잡다

5월 30일 공동추진위 출범… 남부내륙고속철도 유치



해인사와 거창군은 5월 30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을 유치하기 위해 해인사와 거창군이 손을 잡았다. 해인사와 거창군이 해인사역 유치에 함께 나서기로 하면서 역사 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주지 향적)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5월 30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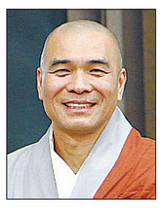
위원회에는 해인사와 거창군 양측 30여 명의 공동추진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남부내륙권에서 역사 조성에 관한 결정은 정략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지방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역사의 위치는 구)88고속도로 해인사 IC가 최적의 장소이며, 역사의 명칭은 해인사역이 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해인사역 유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해인사 내방객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고속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해인사역이다. 김천~거제구간에 가장 명승지인 해인사를 포함하지 않고 역사가 유치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구인모 거창군수도 “해인사역 유치는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남부내륙지역 주민 모두가 교통 편익을 누리고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성주군, 서대구 등이 동반성장 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창군과 해인사는 “향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해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역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퇴휴 스님,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10~20일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23명 중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 3명을 추천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퇴휴 스님과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양정숙 변호사 등 3명이다. 3명의 후보는 6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계환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퇴휴 스님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지혜 교수는 2015년부터 강릉원주대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다. 양정숙 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2차 수색 촉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외교부 앞 릴레이 기도회

2017년 3월 31일 한국인과 필리핀인을 태운 ㈜폴라리스쉬핑의 벌크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2차 심해수색과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서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촉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백비 · 현성 · 보영 스님, 스텔라데이지호 박성백 1등항해사와 허재용 2등항해사 가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지몽 스님은 먼저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했다. 지몽 스님은 이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2년이 넘었지만 수색은 중단된 채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애타지만 외교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계종 사노위는 수색이 시작되고, 원인규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 대한 2차 심해수색을 촉구하는 조계종 사노위 스님과 실종자 가족들.

실종된 허재용 항해사의 누나 허영주 씨는 “1차 수색이 9일 만에 중단됐다. 선체와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2차 수색을 통해 침몰원인 규명과 유골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면서 “스님들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자 기도회를 마련해주셨다. 종교인의 마음이 외교부 관계자에게 닿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나은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을 태운 초대형 광석운반선이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24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2명만이 구조됐다.

윤호섭 기자

민주화운동 불교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

1980년대 사회민주화와 불교자주화 운동에 앞장선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6월항쟁 불교도반은 오는 6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을 개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출 · 재가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과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일선사 한주 장적 스님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이 행사는 민주화운동 주역들의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추모묵념 △공동추진위원장 인사말 △경과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과 이웃종교 지도자 등의 축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6월항쟁과 불교〉 저자 윤금선 작가의 주제 강연 등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6월항쟁 관련자뿐 아니라 사원화 운동을 주도한 주역, 민중불교운동연합,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불교승가회, 동국대 석림회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 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행위원장 장적 스님은 “오래전부터 당시 함께 활동했던 출재가자들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난해 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펴낸 〈6월항쟁과 불교〉 소식에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밑바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YESGOOD.CO.LTD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6월~9월, 16명 출발 조건
포함: 호텔, 식사 업(한식, 현지식), 국내선 4회, 가이드 기사 경비, 생수, 포터, 불자가이드
실속상품: 165만원
(3성 호텔: 양곤-브로드웨이/ 바간-랜드마크/ 만달레이-그레이트 월/ 헤호-후핀 가든)
고품격상품: 179만원
(5성급 호텔: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힐튼/ 헤호-로터스)
NO 옵션! 미얀마는 옵션이 없습니다. 행사 문의 주세요.
((김해공항 출발 가능))

중국
4대 불산
오대산 5일
아미산 5일
구화산 5일
보타, 낙가산 5일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상카시아